

매매가 1.0%, 집값 한풀 꺾인다... 거래량도 5.5% 큰폭 줄 듯

올해 주택시장 전망

2018년엔 매매가 상승세 둔화 내년 주택매매 5.5% 감소 예상
매수 관망세·하향 안정화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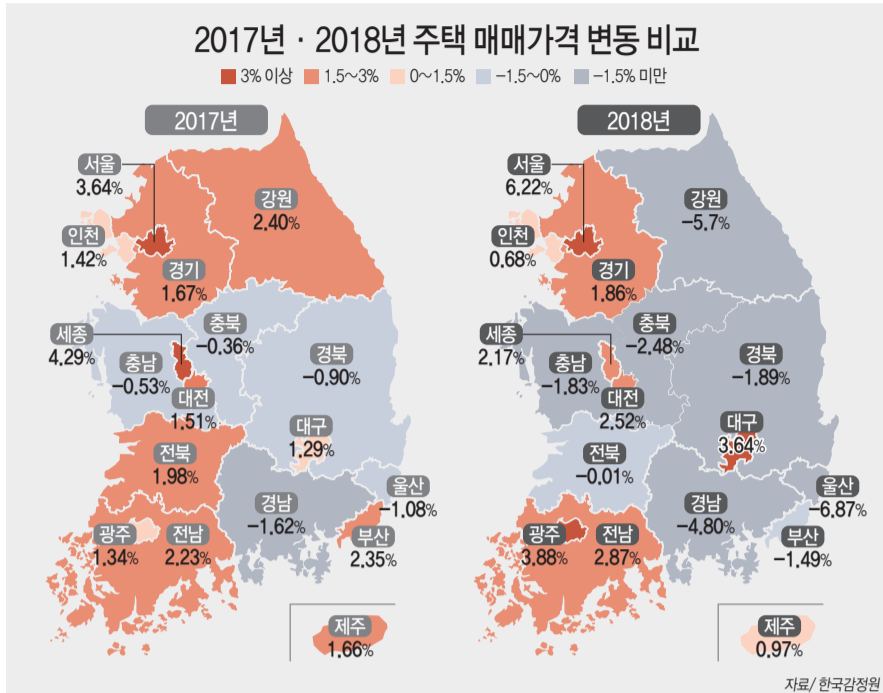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미친 집값'에 시달렸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중위 매매가격이 8억원을 넘어서는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2019년엔 분위기가 반전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정부의 규제 강화, 대내외 경제여건 둔화,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올해 전국 집값이 오히려 1.0%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 2018년 서울 집값 '고하'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2018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9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6.2%, 아파트값 상승률은 8.2%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2016~2017년 상승률을 초과한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6년 2.1%, 2017년 3.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3.2%, 4.7%이었다.

감정원 채미옥 연구원장은 "서울은 용산구 및 마포구 통합개발(마스터플랜 등) 호재로 가격이 급등했다"며 "그러다 서울시가 개발 번복 입장을 표명하고, 고강도로 꼽히는 9·13 대책이 나오면서 상승폭

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1% 상승, 아파트 매매가격은 0.3% 상승에 그쳤다. 서울의 급등세와 달리 지방에선 집값이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이다. 최근 1년간 실질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률을 보면 경북은 5.6%, 강남은 7.5% 상승했다. 반면 전국 변동률은 오히려 1.2% 하락했다.

2018년 11월 말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80만1000가구로 전년 동기(87만5000가구)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았으나 광역시 및 지방 매매거래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적었다.

전체 주택매매거래 대비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7년까지 하락했으나 2018년 들어 67.5%까지 증가했다. 가격대별로 보면 1분기에 4억~6억원 이상, 6억원 이상 주택의 거래 비중이 각각 전 분기 대비 3.2%포인트, 3.7%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및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각각 -1.6%, -2.6%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주택은 0.4%, 아파트는 0.2% 상승에 그쳤다.

◆ 2019년 집값 떨어질까?

지난해 맹렬했던 집값 상승세는 올해 꺾일 전망이다.

감정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을 -1.0%로 하락 전환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2년간 집값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이 전체 가격을 견인했다. 2017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2.4%, 2018년엔 3.3%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집값 변동률도 각각 1.5%, 1.1%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0.5%, 지방이 -1.8%로 예상돼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감정원은 올해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국지적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입주물량 증가, 정부 규제 및 지역산업 위축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락 전환이 예상된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81만건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 속에서 투자자의 매수심리 위축 및 실수요자의 관망세 유지로 주택 구입을 보류하거나 구입 시기를 조정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관측도 나왔다.

채 연구원장은 "주택시장 전반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과 금리 인상,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의 경제여건 둔화로 가격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분간 매수 관망세를 유지하나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이낙연 국무총리, 5G장비 생산현장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5G 장비 생산 현장을 방문, 이동하며 /연합뉴스

금감원, 부서장 80% 세대교체 대규모 인사

금융감독원은 능력과 성과가 우수한 부국장·팀장 30명을 국실장(급)으로 신규 승진발령하고, 부서장의 80%를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석현 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첫 인사다.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교체, 인재 발탁, 전문성이다.

먼저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1966~1968년생 부국장·팀장(22명)을 중심으로 승진인사를 실시해 세대교체를 추진했고, 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과감히 중용했다. 승진자 30명 중 12명은 본부 주요부서의 국실장에 발탁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권역간 교차배치를 최소화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최적 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역량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여성금융감독국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8년간 계속해 여성금융감독·검사업무 담당해왔고, 최상 회계관리국장 역시 2006년 이후 13년간 계속하여 회계감독업무 담당했다. 김성우 은행리스크업무실장과 박진해 보험리스크제도실장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진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여성인재도 발탁해 남성위주의 인력구조 개선도 병행했다.

박선희 인재교육원 실장은 검사, 조사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뿐 아니라 금융교육업무를 다년간 담당해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제도 운영의 책임자로 판단해 발탁됐다. 임지연 과건실장(급)은 IT검사업무, 분쟁조정업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인천광역시청에 실장급으로 파견됐다.

이에 따라 여성인력 국실장(급)은 지난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나머지 팀장·팀원 인사를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MS, 랩탑으로 '스마트 오피스' 확대 노린다

서피스 프로6·서피스 랩탑2 공개 높은 휴대성·편의성·연동성 강점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도 서피스 신제품을 들여온다. 랩탑과 태블릿을 통합한 선구자 모델, 이제는 스마트 오피스를 확대하는 첨병 역할을 맡았다.

MS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서피스 프로6와 서피스 랩탑2를 공개했다. 지난해 미국에 출시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오는 15일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신제품은 겉보기에 전자과 똑같은 모습이다. 서피스 프로6는 제품 측면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든 펜과 제품을 강력하게 지탱하는 '완전 마찰식' 힌지 등을 그대로 갖췄다. 서피스 랩탑2 역시 기존 랩탑 모델 형태를 유지했다.

성능은 업그레이드됐다. 8세대 인텔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14시간30분으로 늘렸다. 전면 부에는 500만화소 카메라를 장착해 화상 통화 선명도를 제고했다.

이제 서피스 디자인이 태블릿 시장 표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15일 공식 출시를 앞둔 '서피스 프로(Surface Pro 6)'와 '서피스 랩탑 2(Surface Laptop 2)'를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준으로 자리잡은 만큼, 굳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MS는 설명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용대 상무는 "서피스는 2011년부터 새로운 컴퓨팅 환경을 위해 개발해온 제품"이라며 "서피스 프로4에서 현재 모습이 완성된 후, 삼성전자와 애플 등 업체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따라 만들고

있었다"고 서피스 디자인의 선진성을 강조했다.

대신 MS는 서피스가 스마트 오피스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높은 휴대성과 편의성을 무기로, 기기 연동성까지 높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MS는 미팅룸과 건축 및 설계 현장 등을 재현하고, 서피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개했다. 서피스는 로지텍과 자브라 등 주변기기를 연동해 사용자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웹카메라와 스피커는 모든 공간을 회의실로 만들어줬고, 공사·설계현장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설계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MS는 이같은 미래형 비즈니스를 위해 클라우드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확보한 사용자 주변 정보를, 필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든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MS는 정보가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용 기자 juk@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高 첫 졸업생 배출... 취업률 85%

국내 1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10명 중 8~9명 꼴로 취업에 성공했다.

국도교통부는 11일 오후 2시에 해외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자 2016년 설립한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의 첫 졸업식이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숙사 신축, 실습 시설 개량, 교육 교재 연구, 해외 연수 지원 등을 위해 2015년부터 4년간 50억원을 지원했다. 학교는 최신식 설비 및 기자재 활용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 외국어 및 외국 문화 교육을

제공했다.

산·관·학 업무협약과 기업 대상 학교 설명회 등도 진행했다.

그 결과 첫 회 졸업생의 126명 중 107명, 졸업생의 85% 이상이 취업이 성공했다. 공공기관 13명, 대기업 9명, 중소·중견기업에 85명이 취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속적인 해외현장 전문가 양성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 공기업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WIFI·World Infra Frontier Internship)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등 국제기구 및 외교부 해외공관 인

턴십 프로그램도 도입해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 재학생이 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에 지원할 경우 일정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선호 1차관은 "그간 우리가 쌓아온 정보통신 기술 역량 및 융복합 기술이 결합하면 향후,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앞으로 학교, 기업, 지역 사회와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 해외진출 등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